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역보건의 한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코로나-19 대응에
즉시 투입해 주십시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에 직면하여 전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며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으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어 사태의 급격한 악화 및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 자칫 의료공백마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활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확산의 경로를 적시에 차단하는 것만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보건의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채취, 경증환자 진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지난 2월부터 일부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코로나 경증환자와 완치자의 후유증에 대한 진료와 봉사를 실시하여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의약의 선진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한의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서는 유무형적 자원의 낭비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의료인으로서 국가를 위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재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아갈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장들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 대응에 어떤 역할이든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신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자 용기를 낸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홍주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이학철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최진만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황병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주왕석	경기도한의사회장	윤성찬
강원도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남도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북도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라남도한의사회장	강동윤	경상북도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상기